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한 육아존중

박원순 부연구위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근무 시간의 축소를 통해 집에 머무는 시간과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일·가정 양립 환경의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가정 내 부부 간의 육아 및 가사의 분담도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특히 육아에 있어서 여성 편중은 더욱 심하지만, 이 역시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실태와 인식이 개선되어가고 있기에 현재의 일·가정 양립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 일·가정 양립 담론

“일·가정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이라는 담론은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대안적 지향이다. 갈등(conflict)이란 대립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이처럼 일과 가정의 대립적인 전제의 문제를 들어 일·가정 강화(work-family enrichment: Friedman & Greenhaus, 2000)나 일·생활 접합(work-life articulation: Crompton & Brockmann, 2007)이라는 대안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김근주, 2017에서 재인용).¹⁾ 또한 “가정”은 기혼자를 가정한 용어이기에 미

혼이거나 싱글인 경우는 배제된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보다 최근 대두되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명 워라밸)이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일과 가정이 대립한다는 전제는 개념상 가정에서의 노동(가사노동, 육아 등)을 일에서 배제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일에 대한 균형적이지 않은 사회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은 용어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법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 여성 노동에 관한 담론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²⁾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³⁾의 주요 내용은 차별 없는

1) 김근주(2017).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체계. 노동리뷰, 2017년 2월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1.6.16. 인출.

일자리 환경 구축(성차별 고용관행 타파,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경력단절 예방(육아기 유연 근무, 아빠 육아 참여 확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일-생활 균형 직장 문화 확산),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법과 기본계획은 일·가정 양립 담론의 문제점인 (여성의) 가정 내 노동보다 가정 밖에서의 노동이 더 권장되어야 하며, 가사 및 육아 등이 여성의 “정상적 노동”을 방해한다는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담론이 지니고 있는 시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를 사회적 노동과 병행해야 하는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여전한 사회 속에서, 육아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육아와 가정의 선택이 사회적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제도가 육아존중문화를 위한 토대가 되어 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의 담론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와, 그 속에서 육아문화가 어떻게 안

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우리 연구소에서 2017~2020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⁴⁾

2.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3,000여명을 표집하여 실시한 우리 연구소의 여론조사 내용 중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극히 일부(2019년 0.2%, 2020년 2.1%)만이 일·가정 양립이 쉽다거나 매우 쉽다고 답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일·가정 양립이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편으로

〈표 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쉬움	쉬운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	평균
2019	0.0	0.2	5.2	53.9	40.6	100.0(3,000)	4.35
2020	0.2	1.9	12.2	47.1	38.5	100.0(3,091)	4.22
성별							
남자							
2019	0.1	0.4	6.4	56.3	36.8	100.0(1,522)	4.29
2020	0.1	2.9	15.6	48.2	33.2	100.0(1,543)	4.12
여자							
2019	0.0	0.1	4.0	51.5	44.5	100.0(1,478)	4.40
2020	0.3	1.0	8.8	46.1	43.8	100.0(1,548)	4.32

주: 평균은 '매우 쉬움(1점)~매우 어려움(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137.

3) 관계부처 합동(2017).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18-22년),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에서 2021.6.16. 인출.

4)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육아정책연구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을 보면, 2019, 2020년도 모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각 53.9%, 47.1%로 가장 높았고,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0.6%, 38.5%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문 분석 중 긍정적인 부분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고 보통, 쉬운 편임, 매우 쉬운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어려움의 인식 정도를 평균 점수로 환산한 값을 비교할 때도 4.35점에서 4.22점으로 낮아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 소폭이나마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국가의 육아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났는데, 4차례의 설문조사에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에 대한 정책이 1순위로 꼽혀왔다. 물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늘 높은 선택을 받아왔지만, 이보다는 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더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에 대한 선택이 거의 과반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43.5%).

국가차원에서 육아관련 정책을 설계할 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에 대한 4 가지 응답 중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아이의 행복”은 자녀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약 70% 정도에 달하여 부모의 양육과 직장에 대한 지원 정책이 육아정책에서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높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문항을 묻지 않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과 2019년에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일과 양육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보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고 있어 이전보다 일·가정 양립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으로 느끼는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부모의 일·가정 양립	31.2	26.5	36.4	31.3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23.2	34.2	22.1	18.2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39.7	27.4	36.4	43.5
아이의 행복	5.8	11.4	5.0	6.5
기타	0.1	0.5	0.1	0.5
계	100.0(3,000)	100.0(3,000)	100.0(3,000)	100.0(3,091)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151-152.

다. 가정 내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최근들어 개선되어가는 경향성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먼저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는 문항은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이 직장 일보다 우선하는지를 묻는 전통적 가치관의 질문이다. 이에 대한 동의는 2017년도부터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에는 거의 중립에 가까운

응답을 기록하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인 인식인 ‘직장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항 역시 감소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소는 영유아 육아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평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표 3〉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1순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32.5	37.8	22.8	30.2	34.5	23.5	34.8	41.1	22.1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31.9	28.7	24.6	36.2	33.2	26.4	27.5	24.1	22.9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7.3	6.7	7.4	8.5	8.5	8.3	6.2	4.9	6.5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6.1	4.9	4.0	6.8	6.3	4.9	5.3	3.4	3.1
자녀의 심리적 안정	10.3	12.1	12.1	9.3	10.3	10.3	11.4	14.0	13.8
자녀의 신체적 건강	3.1	2.2	8.6	3.6	2.6	10.2	2.6	1.8	7.0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5.5	5.1	15.1	3.8	3.4	12.6	7.2	6.8	17.6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3.0	2.3	5.3	1.3	1.0	3.6	4.7	3.6	6.9
기타	0.2	0.3	0.1	0.3	0.3	0.2	0.2	0.3	0.2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3,091)	100.0 (1,522)	100.0 (1,522)	100.0 (1,543)	100.0 (1,478)	100.0 (1,478)	100.0 (1,548)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M), 144-145.

〈표 4〉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2020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87	2.74	2.54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2.94	2.92	2.83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	2.48	2.46	2.61
사례수	3,000	3,000	3,091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M), 132.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잘하고 있다(약간 잘하고 있음+매우 잘하고 있음)는 응답은 2017년도에는 17.7%, 2019년도에는 27.3%, 2020년도 3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여론의 인식이 점차 늘고 있다. 한편,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음+약간 잘못하고 있음)는 응답은 2017년도 27.1%, 2019년도 23.2%, 2020년도 17.0%로 매 조사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4. 일·가정 양립의 실태

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 실태

일·가정 양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가사와 육아 시간을 늘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는 전체 응답자 중 영유아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사용시간 만족도 설문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근무시간은 8.80시간에서 6.69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5.14시간 → 6.83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2.74시간 → 4.51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사용 만족도는 2019년도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집에 머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0% 이상 감소하였다. 즉, 2020년은 매우 급격하게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줄고,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향상된 것을 확인

〈표 7〉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음	약간 잘못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계	평균
2017	2.6	24.5	55.2	13.5	4.2	100.0(3,000)	3.08
2019	6.7	16.5	49.5	23.7	3.6	100.0(3,000)	3.01
2020	4.5	12.5	53.0	25.3	4.8	100.0(3,091)	3.13

주: 평균은 '매우 잘못하고 있음(1점)-매우 잘하고 있음(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158.

〈표 6〉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 실태와 이에 대한 만족도(2019, 2020)

단위: 시간, %(명)

구분	2019					2020				
	사용시간 평균	시간사용 만족도			계	사용시간 평균	시간사용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 하다	부족 하다			너무 길다	적절 하다	부족 하다	
근무시간	8.80	48.7	48.1	3.2	100.0 (462)	6.69	39.4	49.0	11.6	100.0 (951)
집에 머무는 시간	5.14	4.8	34.5	60.7	100.0 (524)	6.83	13.4	41.3	45.4	100.0 (1,325)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2.74	3.2	24.8	71.9	100.0 (524)	4.51	8.6	34.8	56.6	100.0 (1,325)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140.

할 수 있었다.

나. 가정 내 부부간의 역할분담 실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남녀 간의 가사와 양육의 분담이다. 연구소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추이를 비교하였다. 자녀 양육 분담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어머니 : 아버지 = 6.86 : 3.14에서 2019년도 어머니 : 아버지 = 6.65 : 3.35로 아버지 분담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0년도에 어머니가 6.70으로 소폭 증가하고, 아버지는 3.30으로 소폭 감소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일관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2017년에 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아버지의 양육 분담비율이 더 높아진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가사 분담의 경우에는 2017년도 어머니 : 아버지 = 6.81 : 3.19, 2019년도엔 어머니 : 아버지 = 6.60 : 3.40, 2020년도 어머니 : 아버

지 = 6.55 : 3.45로 아버지의 분담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세적으로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의 분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 일·가정 양립과 육아준중

영유아 부모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한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 역시 일·가정 양립이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실감하기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가운데, 전체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실태가 꾸준히 개선되어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녀간의 육아 및

〈표 5〉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비율(명)

구분	자녀 양육 분담비		가사 분담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2017	6.86	3.14	6.81	3.19	(501)
2019	6.65	3.35	6.60	3.40	(510)
2020	6.70	3.30	6.55	3.45	(1,319)
성별					
남자					
2017	6.51	3.49	6.30	3.70	(261)
2019	6.51	3.49	6.31	3.69	(317)
2020	6.37	3.63	5.99	4.01	(606)
여자					
2017	7.25	2.75	7.36	2.64	(240)
2019	6.90	3.10	7.08	2.92	(193)
2020	6.97	3.03	7.02	2.98	(713)

출처: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M), 134.

가사의 분담에 있어서, 그리고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등은 개선이 되어가는 추세이며, 특히 근무시간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대폭 줄었고 실제 근무시간의 양적 축소가 확연하게 확인되어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기 위한 노력과 COVID-19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개인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은 유의해서 볼만한 부분이다. COVID-19 발발 초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면 등원 중단 등의 사태를 겪으며 가정 내 양육의 부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정 내 가사 및 양육 분담을 위한 인식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 문화의 개선을 통해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 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육아의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고 서비스지원 정책(어린이집 보육, 아이돌보미 등)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수요자가 무력감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영유아 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꾸준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COVID-19와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활용이 늘어나 가사와 양육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남녀 간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 육아준중이 더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설문조사의 구조 상 여전히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규명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